

신뢰 바탕으로 자동화에 정진

— 이미지코리아 —

전세계 45개국 80여개의 자회사 및 대리점을 통해 총 매출액의 50% 이상을 수출로 이룩한 프랑스 이미지는 한국지사를 두고 잉크젯프린터라는 한가지 아이টে็ม으로 고객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 및 사후관리와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과 부산에 지사를 두고 국내 자동화에 정진하고 있다. 이미지의 제품은 각종 포장재에 인쇄할수 있는 소문자용 장비인 'JAIME FAMILY' 와 'SEREIS 7' 카톤박스나 포장백에 인쇄할수 있는 ILC, 금속표면에 타각하여 인쇄의 영구보존이 가능한 12M시리즈 등이 있다.

이미지의 잉크젯프린터는 피인쇄물과 잉크가 나오는 부분의 거리가 약 5mm ~ 10mm 정도거리를 두고 분사시켜 주는 방법이다. 이 제품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.

- ▲ 분사식프린터이므로 굴곡된 면이나 경사진 부분도 마킹을 할수 있다.
- ▲ 현재 4~5명이 하고 있는 작업을 기계 한두대로 대신할 수 있다.
- ▲ 잉크가 분사된 후 건조시간이 불과 0.2초면 가능하기 때문에 건조기가 불필요함은 물론 건조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.
- ▲ 프린팅 속도가 분당 1200개 이상 마킹을 할 수 있으므로, PARTS FEEDER가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.

▲ 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 용량이 방대하며 기억시키고 소거시키는 방법이 단순하므로 원하는 문장을 메모리시킨 후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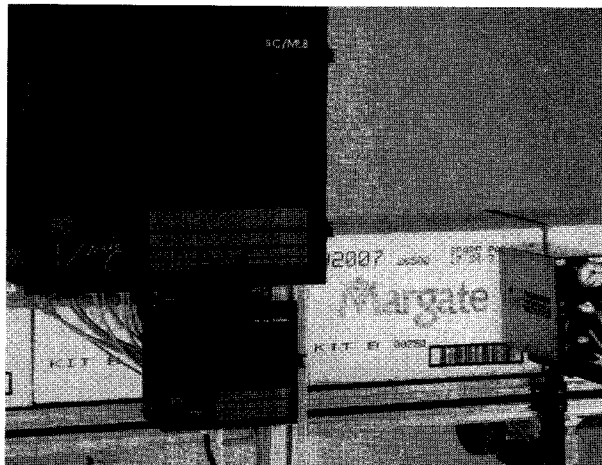
▲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연결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JET PRINTER를 통제할 수 있다.

이와 같은 장점과 특징으로 전자·전기·전선·식품·제약·화장품 등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공장 자동화, 능률화, 공정단순화,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.

이미지코리아는 잉크젯프린터를 주요 취급품목으로 서울 본사와 부산에 지사를 두고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다. 현재까지 LG, 삼성, 해태, 두산 등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총 700여라인의 장비를 설치, 사후관리

중이며 향후 제약업계, 식품포장에서 전자산업 부품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현재 잉크젯프린터의 사용은 생산량이 많고 반드시 제조일자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 및 음료쪽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만, 다른 많은 업종에서도 잉크젯프린터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급증하고 있어서 멀지않아 많은 업종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.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고수하면서 자동화를 구축하기는 어렵고 향후의 심각한 인력부족 등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자동화를 검토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지 측은 밝히고 있다.



◀ 종류별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잉크젯프린터